

특허청,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공개' 대응 나선다

- 2024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외교회의 앞두고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8.23) -
- 자원부국인 개도국 중심으로 의무화 목소리 커져...우리기업 대응방안 모색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 23.(수)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유엔(UN) 산하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기구

** 유전자원(동물, 식물, 미생물 등)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발명에 이용된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의 출처(원산지 또는 제공국 등) 공개

간담회는 오는 9월 외교회의 준비위원회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허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국제규범 논의 동향과 국내 특허제도 부합여부를 발표하고, 관련 업계*는 관련 국제규범이 우리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부 측에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개도국(유전자원 부국)들은 나고야 의정서*(2010년 채택)를 근거로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2022년)에선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 수립을 위한 외교회의를 2024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국제협약

2024년 외교회의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되면 많은 국가가 동 조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허청은 향후 2차 간담회, 산업계에 미칠 영향 연구 용역, 해외 제도 분석 및 홍보 등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윤세영 과장은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빠른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약안이 마련되도록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간담회 계획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책임자	과 장	윤세영 (042-481-8197)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최교숙 (042-481-8555)



□ **개요**

- **(배경)** 유전자원 관련 출처공개 의무화 관련 외교회의 개최('24년 상반기)에 대비하여 업계·관련기관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 필요
- **(일시/장소)** '23. 8. 23.(수) 14:00~16:00/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
- **(참석자)**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특허제도과·유기화학심사과등 관련과, 업계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세포주은행, 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계부처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 **세부 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10')	모두 말씀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
14:10~14:25(15')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논의 경과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14:25~15:00(35')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문안 및 국내 제도와의 부합 여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00~15:55(55')	의견수렴	참석자
15:55~16:00(5')	마무리 말씀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

□ **향후 계획**

- ('23. 9월)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IGC 특별세션 및 준비회의 대응
- ('23. 4분기) ①업계 및 관련기관 2차 간담회
②산업계에 미칠 영향 연구 용역
③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해외 제도 분석 및 홍보
- ('24. 상반기) 외교회의